"대비된 어둠·빛 인상적…80년 5월 광주 조금이나마 실감"

옛 적십자병원 임시 개방 마지막 날
첫 야간 공개…세월 비춘 조명 호평
5월3-31일 누적 방문객 1만4천여명

"개방 전에는 그냥 폐허 같았는데 조명 몇 개로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하루빨리 상시 개방 됐으면 합니다."

지난달 31일 늦은 오후 광주 동구 소재 옛 적십자병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한 달간 임시 개방된 이 곳의 마지막 개방 날로, '야간 개방'이 이뤄졌다.

새로운 볼거리가 추가된 건 아니었지만, 내부의 어둠을 조명이 걷어낸 것 자체가 폐쇄 이후 처음이어서 방문객들은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새로움'을 눈에 담았다.

단연 눈길을 끈 것은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이었다. 외벽·천장의 갈라짐과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기들은 주간의 자연광에도 눈에 훤히 들어왔지만, 밝은 조명이 비춰지니 좀 더 인상적으로 느껴진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바깥의 어둠과 내부의 빛이 대비되면서 공간이 갖는 분위기가 더욱 살아났다는 평도 이어졌다.

서구 화정동에서 온 김은비(40·여)씨는 "야간 개방 소식을 듣고 아이와 함께 보고 싶어서 찾았다"며 "밤에 보니 낮보다는 확실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1980년 5월 광주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그려볼 수 있어 의미있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임시 개방된 광주 동구 소재 옛 적십자병원이 개방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야간에 공개됐다. 사진은 야간 개방에 맞춰 병원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는 방문객들 모습. /주성학 기자

딸 최서윤(17)양도 "5·18 경험 세대가 아니지만 실제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며 어렴풋하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일부 개방이라도 자주 이어져 더 많은 이들이 옛 적십자병원을 체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필름 카메라로 낡고 고요한 복도와 병동, 조명이 스며든 창틀 하나까지 사진으로 남기며 내부 관람을 마친 이들은 뒷마당의 '미래기념비 전개도'도 둘러봤다.

녹색 플라스틱 십자가 모형에 남기고 싶은 글을 적어 켜켜이 쌓아 올리는 이 조형물에는 오월 영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기 전·후 소감을 적는 방명록에도 '역사의 현장에 다녀갑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소감이 빼곡했다.

이번 개방 행사를 기획한 이준호 모이즈 대표는 "마지막 날을 맞아 지금까지 접한 주간의 모습과는 달리 어둠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방문객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며 병원이 다시 숨 쉬는 공간이 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옛 적십자병원 추가 개방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많은 시민이 단기·장기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31일까지 이뤄진 임시 개방 기간 옛 적십자병원을 찾은 방문객 수는 총 1만4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주성학 기자

임동 전남·일신방직 개발 '교통대책' 이견

북구, 차로 확장 등 개선안 제시
市, '효과 미흡' 상당수 미반영
최종 인허가 전 양측 조율 계속

광주 임동 전남·일신방직 개발 교통개선방안을 놓고 북구와 광주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구와 광주시는 최종 인허가 전까지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전남·일신방직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용역을 맡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존재하고 복합쇼핑몰 더 현대 같은 추가 개설이 예정된 광천사거리 일원에 대해 교통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중 전남·일신방직 부지 교통문제 추가 개선안으론 ▲광주천변-빛고을로 연결 ▲신안교-광천1교 우선 사업 시행 ▲천변좌로-양동시장 도로 확장 ▲신안교-신운교 하부도로 확장 등 10가지가 도출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10가지 중 7가지에 대해 미반영 또는 대안 제시 입장을 북구에 회신했다.

미반영 항목은 도로 연결·확장, 보행 교량의 차량까지 확장이 주를 이뤘으며 각 사유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반대와 효과 미흡, 기술적 어려움 등이 꼽혔다.

광천사거리 일원 교통문제 대책 항목 중 보도 및 자전거도로 축소 후 차로 확장을 골자로 하는 '가로망 정비'의 경우 대자보 도시 조성 정책 방향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광주시는 미반영 의사를 전했다.

이에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북구와 전남·일신방직 개발 관련 협의에 적극 나섰던 광주시가 향후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최종 인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광주시와 협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며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광산구, '금타 화재 대응 범대책기구' 운영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기구 운영에 나선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계 ▲기업·경제계 ▲시민사회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등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23명이 참여하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경영 위기와 고용 불안, 주민 피해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의견을 반영한 고용안정 대책 ▲주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방안 ▲공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상생 전략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범정부 지원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옥근 기자

강제송환 허재호 전 회장, 보석 재판서도 "자진 귀국"

변호인 "전자장치 부착도 동의"
檢 "고령 수용자 多…특혜 안돼"

뉴질랜드에서 강제송환 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며 재차 자진 귀국이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허씨 측은 "강제송환이 아닌 사실상 자진 귀국"이라며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며 "심장 질환과 척추 협착증 등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장기간 도망했고 향후에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의 수용자도 전국적으로 수백명에 달하는데 단지 연령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허씨는 보석에 앞서 강제송환 직후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심문도 받았다.

당시에도 허씨 측은 자진 귀국이었다는 것과 함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피력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고 강조했다.

구속 취소가 인용될 경우 보석 청구는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재판부는 이에 대해 먼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러나 기소 전 출국한 허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7년 가까이 공전됐는데, 그 사이 그는 대주그룹에서 100억여원을 빼내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다. /안재영 기자